

무궁무진한 자력갱생의 힘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주동적인 공격으로 현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전략을 제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화국 각지에서 주체적합,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전진도상에 직면한 모든 난관을 맞아와 뚫고나가고있다.

주체적합, 내적동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력갱생의 힘을 의미한다.

자력갱생의 정신력만 있으면 뚫고나가지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억척불변의 진리이다.

부담치는 만년시련을 과감히 뚫고 불리한 객관적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승리의 한길만 걸어온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을 자력갱생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만능의 열쇠로 되고있는가를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고목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력갱생은 기나긴 항일전쟁의 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어로 되었다고 회고하시었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기대어 경제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소리를 하고있을 때 공화국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 국가를 일떠세우는 길을 선택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이 보병총으로 원자탄까지 보유한 침략세력을 타승하리라고 세상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 모든것이 폐허가 되고 재가루가 되어 적대세력들이 100년이라고 했던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

가 날아오르고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는가.

적대세력들이 수십년간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체제채동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공화국은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굳힘없이 이어왔다.

자기 운명을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할 때 강자가 되고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살아 숨쉬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던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

우는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될 수 있었다.

시련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발휘되어온 공화국의 주체적합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분출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황홀한 새 거리가 일떠서고 새 병들이 문을 열어 전설의 전역을 련이어 펼쳐가는 오늘이 시대는 자력갱생의 위력이 높게 발휘되는 거창한 창조적 시대로 되고있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삼지연시우리기 2단계 공사결속, 중령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의 조업, 양덕온천분화휴양지 준공,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의 완공...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들은 공화국의 지력과 발전잠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제재목록을 작성한다고 해도 자체의 역량, 내적동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전진을 저에하는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돌파해나가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자력갱생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혹독한 도전, 엄중한 난국앞에 순용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배해나가는 공화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위력을 남김없이 시하였다. 또한 모든 성과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정책과 자력갱생의 원칙이 낳은 필수적인 귀결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것은 로씨야인민민주주의적 선 위헌장의 토로이다.

그만이 아닌 많은 외국의 벗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상에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장립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위대한 나라이며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나라이다.

조선의 훌륭한 건축물들은 이 나라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것이다.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경제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민주광고주체사상연구원장인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놀라움을 자아내고있고,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에게 지지

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발전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아 바야스넨선봉대 위원장은 이렇게 피력하였다.

자립, 자력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품부화하신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자력갱생의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온 조선인민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자주의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체스고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제1부위원장인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 아래 조선인민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오히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단결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조선에는 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이 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조선이야말로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고 자기 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 사회주의의 본보기, 성세이다.

자주성이 강한 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청년전원들의 결의행진(2020년 1월)

본기자

조국소식

원산구두공장에서 새 학년도 학생용구두생산 결속

원산구두공장에서 새 학년도 학생용구두 생산을 결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선진후량의 원칙에서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하기 위한 중산투쟁, 창조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종합원동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중산투쟁운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양시에서 적극 개발리용되는 태양빛발전체계

평양시에서 자연에너지를 위한 자체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단위에서 계통병렬형태양발전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보강하며 시적으로 그 단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배로 늘어났다.

계통병렬형태양발전체계는 국가전력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우월한 전력발전체계이다.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조건과 단위들의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태양빛발전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해당 단위들에 계통병렬형태양발전체계 도입과 관련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보급하고 태양빛발전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발전체계도입으로 더욱 보는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일반화하는 사업도 차고들고있다.



실리있는 부지절약형온실 - 평양시과외생용품공장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16일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경축모임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모임에서 발언한 최수봉 제1부의장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꾼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항일의 총포성이 울려 퍼지는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일화같은 예국의 넘과 결사현신의 정신을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실 원대한 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강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민족의 어머니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고 대정침공과속에서도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위력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신 강철의 령장, 절세의 예국자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혁명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또 한분의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주체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제일락원이 조국땅우에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불꽃을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영연히 이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신념과 맹세가 담긴 편지들이 상영되었다.

본기자

백두산에로의 랍사열풍 고조



최근 각계층 근로자들속에서 백두산에로의 랍사열풍이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백절불굴의 정신과 기상, 숭고한 품모를 체현하

고있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단행하신 군마행군이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겨울철탐사행군에 참가한 당사

자수는 전국적으로 근 5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전국당선일꾼들과 혁명사적일꾼들, 청년학생들, 노동자들과 직맹일꾼들, 농군맹일꾼들,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탐사행군

대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서의 겨울철탐사사를 진행하였다.

그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로부터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 나 어린 청소년학생들에 이르

본기자